BTS의 OST 참여로 화제를 모은 〈유어 아이즈 텔〉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루이'와 시력을 잃어 가는 여자 '아카리'의 사랑을 그린 로맨스 영화다. 소지섭과 한효주 주연의 2011년 개봉작 〈오직 그대만〉의 리메이크작이기도 하다.

글 편집실

격렬한 신체접촉이 많은 스포츠 선수에게 나타나기 쉬운 병

영화 〈유어 아이즈 텔(2020)〉을 통해 본 뇌진탕

서로에게 눈과 빛이 되어
상처를 보듬는 애틋한 연인

'루이'(요코하마 류세이)는 보육원 출신 킥복싱 선수다. 폭력배 생활을 하다 전과자가 된 이후, 주차장 관리자로 살고 있다. 루이가 일하는 주차장에는 차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된 '아카리'(요시타카 유리코)가 매주 찾아온다.

아카리의 유일한 즐거움은 경비 할아버지와 함께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것. 평소와 다름없이 주차장 휴게실을 찾은 아카리는 경비 할아버지 대신 루이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루이 역시 밝고 순수한 아카리에게 서서히 마음을 연다. 위험에 처한 아카리를 루이가 구해준 일을 계기로 연인이 된 두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아카리와 그런 아카리의 눈이 되고 싶은 루이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행복한 날을 보낸다.

루이의 예전 조직에선 루이를 다시 불법 격투기 대회에 영입하려 하고, 루이는 아카리가 수술을 하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술비를 벌기 위해 마지막으로 불법 격투기 시합을 수락한다.

격투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루이에게도 위협적인 직업병이 있다. 격투기나 권투 등 격렬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뇌진탕이다.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 관찰이 필요한 뇌진탕

뇌진탕은 격렬한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선수나 낙상 위험이 높은 야외 작업자에게 자주 발생한다. 주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데, 뇌의 부종과 출혈은 없지만 신경세포의 기능이상으로 뇌 기능의 일시적인 감소나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직접적인 충격이 아니더라도 가속이나 감속으로 머리가 흔들릴 때도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과 어지럼증이며 그 외에 구토, 집중력 저하, 이명,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휴식을 취하면 2~4주 정도면 호전된다. 휴식을 취할 때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TV 보기, 독서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몇 달씩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고 한다. 두통, 구토,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우울증, 과민, 불안 피로, 수면장애,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진탕 환자의 15% 정도가 1년 이상 겪는다고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 뇌출혈이 뒤늦게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뇌진탕 발생 후 의식 상태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검사상 문제가 없어도 두통, 시력장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뇌진탕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4시간의 기억이 사라졌다.
- ☐ 현기증이 있고 어지러움이 나타난다.
-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 ☐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균형 잡기가 어렵다.
- ☐ 시야가 뿌옇고 정신 차리기 어렵다.

※ 외부 충격을 받은 후 위 증상들이 있다면 즉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TIP

뇌진탕 후 증후군, 이렇게 예방해요!

- 낙상 혹은 뇌진탕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꼭 헬멧이나 안전모를 착용한다.
- 가벼운 뇌진탕이라도 꼭 병원 진료를 받고,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나는지 체크한다.